

결혼 후 지금까지 우리 집 부엌은 줄곧 남편 차지였다.

남편은 요리를 좋아한다. 새로운 조리도구를 사는 재미도 알고, 장을 보는 일도 즐긴다. 반면 나는 요리나 살림에 큰 재능도, 흥미도 없다. 자연스럽게 역할이 나뉘었다. 남편은 요리를 맡고, 나는 아이 교육이나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챙겼다. 서로 잘하는 일을 나누어 해왔기에 특별한 불만도 없었다.

그런데 얼마 전 일을 정리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직장에 다니는 남편은 여전히 바빴고, 나는 예전보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누가 뭐라고 한 적도 없는데 괜히 눈치가 보였다. 남편은 불평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내가 스스로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어느 날은 마음먹고 저녁 준비를 했다. 밥을 안치고, 무를 썰어 조림을 만들고, 옥수수전을 부치고 있었다.

그때 남편이 퇴근했다.

“뭐 해? 소시지는 왜 꺼냈어? 어제도 먹었잖아...”

말을 하며 어느새 냉장고에서 고기를 꺼낸다.

“여보! 오늘은 좀 내가 하게 놔둘래?”

평소 같으면 웃고 넘겼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서운했다.

누가 들으면 우스운 일일 것이다. 어떤 아내가 남편의 요리를 마다한단 말인가. 그것도 십 년 넘게 맛있는 밥을 받아먹던 사람이.

그런데도 기분이 좋지 않았다.

잠시 후 깨를 찾다가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 깨 어디 있어?”

“냉장고 문 쪽.”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다. 집에 어떤 양념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라니.

나는 스스로를 꽤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다. 성역할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믿었고, 남편이 요리하는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런데 정작 내가 일을 쉬게 되자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죄책감이 고개를 들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감정은 남편 때문이 아니었다.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집안일을 해야 한다.’

어릴 때부터 보고 들으며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생각이 내 안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새 그 기준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무조림을 맛보더니 말했다.

“무조림 맛있네.”

딸도 옥수수전을 먹으며 엄지를 들어 보였다.

괜히 시험에 통과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식사를 마친 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나는 남편의 요리에 고마움을 느끼기보다 미안함을 느꼈을까.

남편은 단 한 번도 내가 요리를 하지 않는다고 불평한 적이 없다. 오히려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남편이 아니라 내 안의 오래된 기준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의 요리에 미안해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고맙다고 말하기로 했다.

남편 역시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족의 일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각해 보면 양성평등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처럼 성별에 따라 역할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과 강점을 존중하며 함께 책임을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언젠가 딸이 지금의 내 나이가 되었을 때는 남편이 요리하는 모습을 특별한 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안해할 일도, 자랑할 일도 아닌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차려준 밥 한 끼를 편안한 마음으로 먹으며 “고마워” 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

내가 바라는 양성평등은 어쩌면 그런 모습에 더 가까울지 모른다.